



공동체 소식

**성령 강림 대축일**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어,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배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5월 기도지향

- 이우석(프란치스코), 김인자(글라라) 가정
- 차호섭(요셉), 최선운(마리아) 가정

성모성월

교회는 해마다 5월을 성모성월로 지냅니다. 성모 마리아를 온 인류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교회는 전례 주년을 통하여 구세사를 기념하는 동안 성모 마리아의 축일을 지내며,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하느님에 대한 흠숭과는 다릅니다. 곧 성모님께서서는 우리 신앙인의 본보기로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성인 중의 성인으로서 특별히 공경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썰 기도 첫 모임

- 일시 : 5/21(화) 오후 8시 미사 후
- 장소 : 회관
- ☞ 성모성월에 저희 공동체가 썰기도 첫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전구에 의탁하며, 참된 성모신심이 공동체에 싹트기를 기원합니다. '파티마 세계 사도직 미주 평의회'에서도 축하인사와 함께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서신이 왔습니다.

첫첨례 신심미사

- 첫목요일 : 5/30(목) 오전 10시
- 첫금요일 : 5/31(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첫토요일 : 6/1 (토) 오전 10시, 미사 30분 전 목주의 기도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5/25(토) 오후 5시
- 장소 : KU 로렌스 성당

기타

- 봉헌 때, 성령 카드 한 장씩 뽑아 가져서 은사를 청합니다.
- 북미주 사제모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가 회관에서 있습니다.
- 6/1(일)은 Holy Trinity '본당의 날'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47	217	155/153	41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주	안지영(카타리나)	정병훈(보니파시오)
	정예찬(미카엘)	차서은(세라피나)
차주	차서은(세라피나)	안광희(크리스토퍼)
	이원준(요 한)	안광민(야 고 보)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차호섭(요 셉) 최선운(마 리 아)
차주	김수연(율리안나)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 브 가)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조경희, 이대숙, 김말자, 문경윤
차주	백문주, 최은미, 박정옥, 안이, 박정자

헌금 봉사자

금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박희영(카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5/05	98명	339불	500불
05/12	104명	475불	1050불

☞ 성모의 밤(5/10) 헌금은 199불입니다. 미사참례 58명입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 태어났음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 성화해설

**성령 강림 (지오토 디 본도네(추정)1306-12, 페넬화 런던 내셔널갤러리)**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사도 2,1-4 참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는 5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지오토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시던 그 날의 감격스런 체험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사도 2,1-11 <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주님 - 당신 열을 보내시 - 고 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 소 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크시고 크시어라 주 저의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많고도 많건마는 온 땅에 당신 조물 가득 차 있나이다. ◎
- 열을 거두시면 그들은 숨겨버려 드디어 티끌로 돌아가고 마나이다. 보내시는 당신 열에 그들은 창조되어 누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이루신 일 기뻐하소서. 이 노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주님 안에서 저는 즐거우리이다. ◎

제 2 독서 : 1코린 12,3c-7.12-13<또는 로마 8,8-17> <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

복음찬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요한 20,19-23<또는 요한 14,15-16.23-26>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

# 세 마

## “성령의 불뚝이라도 떨어졌으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통과 불신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정책입안자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충돌로 사상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 역시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언어를 국어로 사용하면서도 대화는커녕 전쟁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소통과 화합의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의 날 하늘에서 거센 바람 소리가 나더니,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전하는 말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자기 모국어로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작은 불꽃들이 이루어내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성령강림을 통해 바벨탑의 사건(창세 11,1-9)과 정반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던 인간들은 결국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불꽃은 서로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위엄을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1코린 12,13)라고 말하듯이 이제 성령 안에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또한 평화의 대축일입니다. 요한 복음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예수 부활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요한 20,19)고 합니다. 폐쇄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안으로 들어오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두 번이나 인사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흠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창세 2,7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문을 열고 나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엄과 평화를 전하는 일꾼으로 거듭납니다.

불통과 불신,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 답답하고 불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소통과 화합, 그리고 평화의 성령께서 내려오심이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불통과 불신, 그리고 반평화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성령의 불뚝이라도 절실한 오늘입니다!

- 서울 대교구 김영국 신부 -



# 마중물

## “어느 인디언의 행복”

예수회의 전교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북아메리카의 넓은 지역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이 나타날 때마다 발길을 멈추곤 하였는데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원주민들이 의외로 복음을 아주 쉽사리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자진해서 신부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특별히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 필요한 교리를 배워 세례 받고 영성체도 했습니다. 그 후 일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인디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신부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스스로 세례를 받고 입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뛰어나와 신부님을 맞이했습니다. “신부님, 지난해에 제게 주셨던 행복을 또 한 번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부님은 그의 말을 금방 알아듣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은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몸을 제 마음에 모시는 바로 그

행복 말입니다.” “암, 그렇게 하다가마요. 그런데 먼저 고해를 해야 해요. 그때 배운 대로 양심 성찰은 잘 하셨는지요?” “신부님, 저는 작년에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양심을 성찰했습니다.” “그럼, 세례한 후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인디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죄 말씀입니까?” “십계명과 교회법을 거슬러 범한 대죄를 전부 고백해야만 합니다.” 신부님이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대죄라고요? 아니 세례한 후에 하느님을 거슬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스도교인으로서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대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한 인디언은 흐느껴 울기까지 했습니다. 전교 신부님은 이 인디언의 순박함에 큰 감명을 받았고 다시 세심하게 일러주고 고해 성사를 받게 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본 후 그 인디언은 오랫동안 갈망하던 행복, 즉 두 번째로 영성체를 하는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 ‘신앙의 해’ 교육자료

## 제 3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 34. 주님 공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 공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공현은 요르단 강에서 받은 그분의 세례와, 카나의 혼인 잔치,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사실을 기념합니다. 복음은 주변의 이교(異敎)들을 대표하는 이 박사들이 강생을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민족들의 시초라고 봅니다. 박사들이 “유대인들의 임금께 경배하러” 에루살렘에 온 것은, 다윗의 별이 비추는 메시아의 빛을 받아, 장차 만민의 왕이 되실 분을 이스라엘에서 찾았음을 보여 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하고, 그들로부터 구약에 담겨 있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일 때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과 온 세상의 구원자로 경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 공현은 “많은 이방인들이 구약 성조들의 가문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특전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카톨릭교회교리서, 528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